



정교회주보

제2535호
2025년 7월 27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마태오 제7주일
성 반델레이몬 대순교자
성 안투사 고백자
(제6조 • 조과 복음 7)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6조 부활 찬양송 82
- 순교자 찬양송 84
- 성당 찬양송
- 구세주 변모 축일 시기송 178
- 사도경 : 디모테오 후 2,1~10 (봉)602
- 복음경 : 마태오 9,27~35 112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우리를 미워하는 이들과 우리를 사랑하
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진 설명

세레조

세레조(사진)는 예비 신자가 세례를 받을 때 사용한다. 정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자 요한의 전통에 따라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로 세례성사를 거행한다. 초기 교회에서는 강, 호수 혹은 세레조(콜림비트라)에서 세례가 이뤄졌다. 돌로 만든 콜림비트라는 커다란 원형이나 팔각형 모양으로 성당 내부나 근처에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세례성사에서 세레조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세 번 침수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일으킴을 받는다. 이는 곧 침수로 상징되는 죄로 인한 죽음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에 의해 새 생명으로의 탄생을 의미한다. 또한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옴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다는 신학적 의미를 가진다.

세레조의 형태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부분 금속(주로 은, 동, 황동)으로 만들며, 성당 내에 고정으로 설치되어 있거나 이동식으로 사용한다.

두 가지 큰 위험

조성암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정교회의 소중한 보물이 두 가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는 주로 우리 신자들과 관련된 위험으로, 바로 ‘형식주의’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는 일정한 형식과 거룩한 상징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본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형식만을 고수하고 본질을 잃는다면, 이는 마치 달걀의 껍데기만 남기고 노른자와 흰자는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당에 들어가면서 초를 켭니다.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지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초가 타면서 빛을 내듯이 신자의 삶도 타오르며(희생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으로 이웃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우리가 “나는 성당에 가서 초를 켜다”고 말하면서도, 삶에서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며, 심지어 그 성초로 하느님의 호의를 샀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형식주의자가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위험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교회에서 다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적은 아니며, 정교회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부 사람들

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교회는 매우 신성한 것이다.’ 그러면서 정교회를 마치 박물관에 있는 전시물처럼, 오늘날의 삶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일부 사람은 정교회가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통이라는 것이 곧 보수와 고착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교회의 전통은 고대 시대에 작은 개울처럼 시작되어 세월이 흐르면서 거대한 강이 된 것입니다.

전통이라는 강에서 멀어진 사람은 결국 고인물이 되어버립니다. 정교회의 전통은 고인 물도, 보수적인 고착도 아닙니다. 전통은 뿌리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결국 시들고 맙니다.

정교회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생동하고, 움직이며,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며, 세상에 은총을 베푹니다. 정교회의 말씀은 살아 있으며, 모든 시대에 잘 어울립니다.

정교회는 희망, 정의, 평화,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합니다. 정교회는 형식주의도 아니고, 과거에만 머무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정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경험해가도록 합시다. 신앙으로서의 정교회, 그리고 삶으로 실천하는 바른 행위로서의 정교회로 말입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실루아니 블라드 수녀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역음



다음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번은 오만하고 무신론자인 한 남성이 그리스의 에비아섬에 있는 성 다비드 수도원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에는 야고보 (찰리키스) 성인(1920-1991)이 수도원장으로 계셨습니다. 남성이 수도원을 찾은 것은 그를 아끼는 친척한 사람이 “가서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부르는 분을 만나보라”고 권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친척의 권고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가 수도원 입구를 들어섰을 때, 야고보 성인이 잔잔한 웃음을 머금고 차분히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성은 악수 따위는 기대하지 않았고, 그저 무언가 말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나는 야고보 성인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부드럽게 말을 건네왔습니다.

“아들아, 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그분께서는 매일 밤 네가 홀로 괴로워 울부짖을 때마다 너를 기다리고 계신단다.”

남성은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저녁마다 울면서 “나의 하느님이여, 당신은 실제로 계시는 것입니까?”하고 물어왔음을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 야고보 성인이에 대해 언급했던 것이었습니다.

야고보 성인은 남성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온전한 사람을 위해 오지 않으셨고 상처 입은 사람을 위해 오셨다네. 그분이 자네를 낙원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네. 그것은 자네가 선택해서가 아니라 눈물로 그분을 찾았기 때문이라네.”

남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저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수도원에서 3일 동안 머무르면서 처음으로 고백성사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 그는 다시 수도원을 찾았고, 거기서 만난 다른 순례객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느님을 믿습니다. 야고보 성인은 저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저를 모르는 분이었는데, 마치 그분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제 마음의 이야기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덕분에 하느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왜 거짓말을 하고, 왜 살인을 하고, 왜 죄를 지었느냐고 절대로 묻지 않으십니다. 이미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에 대한 해답 또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왜 나에게 와서 치유받고, 쉬고, 위안을 얻지 않느냐? 어서 오너라! 그래서 내가 지친 너를 쉬게 하고, 위로하고, 내 품 안에 안아줄 수 있도록...”

■ 성모 안식 축일 준비

8월 15일(금) 성모 안식 축일 맞이를 위해,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엄격한 금식을 합니다. 또한 매일 저녁에는 '성모 소기원 의식'을 드립니다.

금식과 기도를 통해 성모님의 큰 축일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습니다.

8월 6일 구세주 변모 축일에는 생선류가 허용됩니다.



영성의 샘터

영적 투사

어느 사부가 젊은 수도자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인간인 자네에게 천사가 될 수 있게 영적 투쟁을 하라고 말해도 놀라서는 안 되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영적 투사들에게 천사와 같은 영광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 대교구 여름 수련회 공고

내일부터 대교구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참가 신청을 마친 학생들은 준비를 잘해서 유익하고 거룩한 시간을 보내도록 합시다. 신자 여러분께서는 수련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봉사와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장소: 춘천 성 보리스 성당
- 일정: 7/28(월)-8/3(일): 초등학생 (참가비 18만원)
8/4(월)-6(수): 중고등학생 (참가비 6만원)
-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500-073554
(재단법인 한국정교회 유지재단)

■ 구세주 변모 수도원 축일 안내

오는 8월 6일(수)에 축일을 맞는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서는 8:30 초과, 9:30 성찬예배 일정으로 축일 예배가 거행됩니다. 참례를 원하시는 분은 소속 성당을 통해 미리 알려주시면 준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서울 성당에서는 버스 대절 여부를 결정해야 하니, 꼭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례를 원하지만 당일 아침 일찍 수도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힘들어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4-6일(월-수) 중으로 춘천 성당에서 숙박한 후 가평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차로 이동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혹 여의치 않다면 차편 대절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소속 성당을 통해 미리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성당 유아 세례성사

지난 17일(목), 성 막심 성당에서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로만 대신부, 테오도시오스 신부, 에피파니오스 신부의 집전으로 성찬예배 중에 거행된 세례성사를 통해 하말리스 안나 아기(하말리스 안드레아스 & 조혜원 엘레니 부부의 딸)가 세례를 받고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리며, 하느님의 은총으로 거룩하게 자라길 기원합니다.

■ 춘천 성당 봉사활동

지난 7월 18-19일(금-토) 일정으로 서울 성당의 장년회(아퀼라와 브리스킬라)와 신데즈모스 회원들이 춘천 성 보리스 성당을 방문하여 수련회 준비 청소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청소 외에도 예배 참여와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